
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
	배포일시	2019. 7. 12(금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	담당자	·과장 김승범, 사무관 하태아, 김영지 ·☎ (044) 201-4526, 4515	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신규택지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(2차) 개최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남양주왕숙, 인천계양, 과천지구의 전략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, 지난 1차 주민 공청회(6.26)에 이어 오늘 2차 주민 공청회도 모두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다고 밝혔다.
 - 오늘 공청회에서는 지구지정 및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, 공청회에서 제안된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필요한 부분을 계획에 적극 반영하고, 앞으로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.
- 한편, 60여회 이상 간담회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한국토지주택 공사(LH)와 주민들 간 협의 채널을 구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.
 - 과천의 경우 LH와 주민대책위원회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보상 및 주민 재정착 방안 등을 논의 중이며,
 - 인천계양의 경우 주민들이 정당보상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생계대책 차원의 주민참여*도 요구하고 있어 이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.
 - * 주민들이 생계조합을 구성하여 수목이식, 현장 관리 등 신규택지 사업에 참여
 - 하남교산과 남양주왕숙의 경우에도 다음 주 착수 예정인 기업 이전대책 용역에 기업대책위원회가 참여하여 지구 내외에 기업 이전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다.

□ 지구지정 이후 보상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 참여, 거래시세 반영 등을 통해 최대한 정당보상하고,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면서 보상금으로 인한 유동성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대토 보상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.

* 최근 보상이 진행된 수서, 고양장항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대토 보상 비율이 각각 51%, 35%에 이를 정도로 대토보상에 대한 주민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공공주택추진단 하태아 사무관(☎044-201-4526), 김영지 사무관(☎044-201-451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